

2015년도 국제교류 2차 공모사업 분야별 심의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분야1 • 시각예술분야2 • 연극분야4 • 무용분야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분야7 • 전통예술분야8 • 다원예술분야9
--	---

문학분야

- 일시 : 2015. 6. 18(목), 14:00~16: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 3
- 심의위원(가나다순) : 권세훈, 김종욱, 이송원, 이태수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및 체육기금사업 문학분야 제2차 국제교류 지원심의위원회는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총 3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3개 유형 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23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276백만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23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문학분야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사업은 총 3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1건을 선정하였다.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지 않았지만 최대한 지원 기회를 부여 하려고 노력하였다. 차후에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외협력대상 기관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문학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사업은 총 3건 신청되었으며, 이 중 3건을 선정하였다.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점과 필요경비가 과다계산된 경우에 대해 다소간의 아쉬움이 있었으나, 지원신청서의 면면을 보면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

에 체류하며 새로운 문학을 창출하려는 작가들의 의욕이 두드러져 고무적이었다.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문학분야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사업은 총 17건 신청되었으며, 이 중 7건을 선정하였다. 전체적인 심사 결과 작가들이 해외에 체류하며 창작 경험을 넓히려는 의도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언어구사능력의 문제로 현지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작가들이 많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 등 경쟁률이 높았던 사업의 경우에는 비교적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젊은 세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을 고려했다.

시, 소설, 드라마 전반에 걸쳐 골고루 창작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협력 기관과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문인들의 해외 교류에 더 많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문학분야 심의위원 일동

시각예술분야

- 일시 : 2015. 6. 16(화), 13:30~17: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 1
- 심의위원(가나다순) : 배명지, 변종필, 이 준, 정 현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및 체육기금 국제교류 2차 공모사업 시각예술분야 지원심의 위원회는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기획형)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등 총 3개 유형의 사업을 신청 받아 심의하였다. 3개 사업유형의 총 지원신청 건수는 129건, 지원신청 총액은 2,078백만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건의 지원신청서, 포트폴리오 등의 사업계획자료 일체를 사전에 검토하였다. 또한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 토론을 통해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지원 금액은 신청자들이 제출한 지원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시각예술분야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사업은 총 73건, 지원신청 총액은 1,512백만원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2건을 선정하였다.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원심의회에서는 신청 사업들의 해외협력기관과의 협력 정도와 사업수행장소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실행가능성을 상호 비교하였다. 또한 국제교류사업에 적합한 역량있는 기관과 작가, 기획자가 참여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국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심의회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지원사업과 작가의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다. 사업 계획이 좋고, 작가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할지라고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아왔거나 양 국가 혹은 기관 간 교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의 경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았으나 이번 신청 사업에서 새로운 방향성과 발전의지를 보인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사업계획서상 기획이 매우 흥미롭지만 사업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행사 위주의 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리 사업의도가 좋고, 그 의미가 크다고 해도 주목 받기 어려웠다.

그 결과 선정한 12건의 사업은 예술적 완성도,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향후 국제교류 파급효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한국 현대미술계와 해외 미술계와의 네트워크 강화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었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시각예술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사업은 총 신청건수가 27건, 지원신청액이 248백만원이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3건을 선정하였다.

지원심의회에서는 레지던시 참여기간 동안 작가가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명확한지, 그리고 작가의 예술적 역량이 뛰어나며 국제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작가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레지던시의 경향과 그 지역의 문맥이 작가의 작품 및 작업의 성격과 잘 연결되는 경우 심의위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지원규모는 체류기간과 장소 및 신청예산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사업은 총 29건이 신청되었고, 세부적으로는 스페인 마타데로 현대미술창작센터 레지던시 12건, 영국 가스웁스 레지던시 15건, 핀란드 HIAP 큐레이터 레지던시 2건이 신청되었다.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2차'사업의 경우, 현지 기관과 예술위의 협약에 따라 예술위 측에서 1차 심의를 진행하여 일정 수의 후보를 선정하고, 이들의 영문 신

청서 및 포트폴리오 심의를 통해 해외 현지 주관처 측에서 최종 1인을 선정하게 된다. 그 결과, 이번 심의에서는 1차 후보군으로 스페인 마타데로 현대미술창작센터 레지던시 참여 작가 4명, 영국 가스웍스 레지던시 참여 작가 5명, 핀란드 HIAP 큐레이터 레지던시 참여 작가 2명을 선발하였다.

심의위원 전원은 사전에 작가가 제출한 포트폴리오와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것을 토대로 논의하였으며, 그 동안의 작가의 활동경력과 작업역량, 해외 현지적응도를 통한 국제적 파급효과를 토대로 심의하였다. 작가의 역량 및 그들의 활동성과 연계하여 해외 레지던스 측에서 큰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하였다. 핀란드 HIAP 큐레이터 레지던시의 경우, 6명의 1차 후보군을 선발하게 되어 있으나, 신청 건수가 적은 점을 감안해 현지 주관처에서 최종 선발하도록 하였다.

시각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

연극분야

- 일시 : 2015. 6. 19(금), 14:00~17:00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승미, 백로라, 서재형, 정현욱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및 체육기금사업 국제교류 2차 공모 연극분야 지원심의위원회는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등 총 2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2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신청 건수는 55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566백만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55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연극 분야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사업은 총 50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10건을 선정하였다. 우선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라 국제교류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인회 초청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하였으

며, 국제교류 지원금 수혜의 기회를 고루 부여할 수 있도록 1차 공모 선정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가급적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놓았다.

해외 파트너 기관이 신뢰할 만한 기관인지와 제시하는 초청교류조건이 얼마나 양호한지를 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지의 여부, 단순일회성 공연에 그치지 않고 교류를 통해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고려하였다. 아무쪼록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을 통해 한국의 좋은 공연들이 해외에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연극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사업은 총 5건이 신청되었으며, 논의 끝에 5건을 모두 선정하였다. 연극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자가 미약하나마 증가하고 있는 점과 연출가, 연기자, 프로젝트형 레지던스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신청자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 건의 신청자가 모두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레지던스 이후 후속 창작활동에 대해서도 계획들이 구체적이었다. 아무쪼록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경험이 본인의 창작역량 및 국제감각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 연극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를 당부한다.

연극분야 심의위원 일동

무용분야

- 일시 : 2015. 6. 8(월), 11:00~14: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 3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순정, 김은이, 오문자, 이 송, 조은숙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및 체육기금사업 무용분야 제2차 국제교류 지원심의위원회는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등 총 2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2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55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177백만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55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무용분야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사업은 총 50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18건을 선정하였다. 우선 해외 초청기관의 교류조건과 공신력을 고려하여 국내 공연계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지원 신청서를 기초로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충실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중점으로 판단하였다.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와 일회성 참가에 의미를 두는 세미나 참석 등과 같은 사업은 지원선정에서 우선 제외하였으며 공연에 참가하는 무용수들의 명단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 무용수가 여러 지원 단체에 포함되어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수혜가 잦았던 단체보다는 해외에서 초청받은 젊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좀 더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 축제를 통해 초청받은 작품은 향후 발전 가능성과 해외진출 플랫폼 역할을 독려하기 위해 선정시 고려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무용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사업은 총 5건 신청되었으며, 1건을 선정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사업도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연속해서 지원금 혜택을 받은 지원자들은 우선 배제하였으며, 이는 지원 혜택의 폭을 넓히는 것 외에도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를 넘어 이제는 그러한 경험을 발판삼아 발전된 모습으로 새로운 작품 창작의 장에서 새롭게 성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언어능력, 그리고 참가하는 레지던스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다만 프로그램이 우수한 레지던스에 신청한 건수가 적은 점과 한국 무용 분야의 신청이 없었던 점이 안타까웠다. 젊은 예술가들이 본인의 역량을 키우고 국제적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더 많은 신청자들이 있기를 기대한다.

무용분야 심의위원 일동

음악분야

- 일시 : 2015. 6. 8 (월), 14:00~16:3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 2
- 심의위원(가나다순) : 박재성, 이나리메, 이민정, 장기범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및 체육기금사업 국제교류 2차 공모 음악분야 지원심의위원회는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등 총 2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2개 유형 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55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548백만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55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음악분야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사업은 총 51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10건을 선정하였다. 먼저 사업 추진기간이 공모요강에서 벗어나거나, 사업 추진 확정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제외하였다. 사업내용은 좋을 수 있으나 신청조건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선정했을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선례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만큼 연주의 수월성과 사업규모 면에서 전문 공연이라기보다는 아마추어 성격이라고 사료되는 공연과 단체끼리의 단순 교류 프로젝트나 교민대상 행사, 그리고 개인 독주회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을 지양하였다.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은 상대방 파트너 단체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류조건이 양호한 사업들을 우선 고려하였다. 우리 음악 단체나 예술가를 초청하고자 하는 축제 또는 아트센터 조직의 신뢰도와 수준 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 예술단체의 예술적 수월성, 공연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실현가능성이 높은지도 함께 고려하였다. 특히, 한국 연주자들의 예술적 수월성을 국제 음악계에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 우선순위로 논의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음악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사업은 총 4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2건이 선정되었다. 신청사업 중 레지던스 성격이라고 보기에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사업, 레지던스 후의 작업발표나 단순 협업공연은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은 레지던스 기간 중의 창작자의 역량강화 즉 지원신청자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예술적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레지던스 주최 측이 제시하는 체류조건과 기관의 공신력도 심의회의에서 함께 검토하였다.

음악분야 심의위원 일동

전통예술분야

- 일시 : 2015. 6. 9(화), 10:00~12: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 1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승국, 김일륜, 김진이, 한상일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및 체육기금사업 국제교류 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위원회는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총 3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3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59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713백만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전통예술분야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사업은 총 52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4건을 선정하였다. 주요 심의기준으로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과 '예술적 우수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였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금 지원을 받아 온 신청자와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되도록 배제하였으며, 해외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여부와 해외 파트너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참여 예술가의 예술적 역량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으며, 소외되는 장르가 없도록 고르게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지원 가능액이 적어 선정자별 지원 결정액을 다소 적게 책정하게 되었는데, 선정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지원 예산이 증액되기를 기대한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전통예술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사업은 총 2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건을 선정하였다. 신청자 수가 적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신청자의 예술적 역량과 활동의 폭,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특히 선정자 유홍씨는 독일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해오고 예술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지원금의 지출 계획을 수정하여 체재비보다는 예술활동비로 사용하기를 권한다.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전통예술분야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사업은 총 5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건을 선정하였다. 각각 색깔이 뚜렷한 5개 단체가 지원하여 여러 가지측면에서 논의하였으나, 예술적 잠재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유럽방송연맹 민속축제에 파견하는 사업이므로, 향후 적극적인 유럽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였다. 충실한 준비를 통해 예술적 역량을 자유롭게 펼치고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전통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

다원예술분야

- 일시 : 2015. 6. 8(월), 17:00~19: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극장 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서령, 김요안, 이수정, 이준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및 체육기금사업 국제교류 다원예술분야 지원심의위원회는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총 2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2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28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700백만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다원예술분야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사업은 총 23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5건을 선정하였다. 과거에 비해 타 장르 내 수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신청은 줄었고, 다원적, 복합적인 성격이 보다 분명한 신청 프로젝트가 많아졌다고 본다. 또한 예년에 비해 디자인, 사진 등 시각예술 기반 예술가들의 지원이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중장기 국제교류, 지속적인 협업 프로젝트들의 지원이 눈에 띄었으며 비교적 충실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었다. 다원예술의 성격이나 방향성, 새로움과 독창성이 부족한 사업과 대부분의 예산을 국내 기금에 의존하는 사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상대 기관 및 국가와의 협업 여부, 양측의 사업 수행 능력, 지속성과 향후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정하였다. ARKO-KAMS 커넥션 사업의 경우, 현지 파트너 기관과의 진행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검증은 거쳐 지원을 결정하였다. 한-호, 한-불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Creative group 노니'와 '코끼리들이 웃는다'의 성장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교류의 목적을 더 분명히 하여 예술적, 기술적 성장을 이뤄내기를 바란다. 또한 '창작공간 단디'의 국내 미개척분야 협업 사업과 Lacma와의 협업을 시도한 '강이룬'의 프로젝트는 국내 예술계에서 새롭고 참신한 영역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지원을 결정했다. 총 예산 규모가 작아 충분한 지원이 불가능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다원예술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사업은 총 5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4건을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 신청자들은 다양한 지역의 레지던시 참여에 대한 지원을 신청했는데, 이는 문화다양성과 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되도록 젊은 예술가들이 가진 잠재적 가능성을 수용하여 그들의 시도가 가능한 인정되고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지원을 통해 뚜렷한 예술적 지향점을 찾고, 중견 예술가로 성장하고, 그들의 네트워크가 주변의 다른 젊은 예술가들에게로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원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